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 인천개최 지지 결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 인천개최 지지 결의안

의안 번호	1039
----------	------

발의년월일 : 2010. 3. 31

발 의 자 : 김용근 · 이명숙 · 최만용
박창규 · 오흥철 · 이병화
정종섭 의원

1. 주 문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축구 축제인 “2022 FIFA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기를 기원하며, 개최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가 개막전 등 주요 경기를 개최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FIFA 규정에 따르는 2022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FIFA 및 2022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가 규정하는 경기는 물론 미디어, 통신, 보안, 도핑 컨트롤 등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제반 시설들이 완벽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문학월드컵경기장의 내·외부 및 그 부속시설들은 FIFA 및 2022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권을 부여하고, FIFA와 사전협의를 없는 모든 사적인 광고행위의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하나,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환경, 안전과 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22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와 인천광역시 간의 협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며,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써 세계적 수준의 주경기장 건립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편리한 교통, 숙박시설 등 각종 기본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 개최국이 대한민국으로 결정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가 개막전 등 주요 경기 개최도시로써 FIFA의 기준과 요구사항에 따라 2022 FIFA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 지지결의를 채택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 인천개최 지지 결의문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 인천개최 지지 결의문

인천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역사적인 문학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국제스포츠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통·숙박·경기장과 동북아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도시철도 및 광역·간선 교통망 등 완벽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축구 축제인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기를 기원하며, 개최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서 최고의 제반 여건을 갖춘 인천광역시가 개막전 등 주요 경기를 개최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22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와 인천광역시 간의 협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며, 성공적인 월드컵 대회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FIFA 및 2022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가 규정하는 경기는 물론 미디어, 통신, 보안, 도핑 컨트롤 등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제반시설들이 완벽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과 문학월드컵경기장의 내·외부 및 그 부속시설들은 FIFA 및 2022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동안 사용권을 부여하고, FIFA와 사전협의를 없는 모든 사적인 광고행위의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3.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환경, 안전과 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2010.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Resolution

Incheon City is home to the historic Munhak World Cup Stadium where the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famously made it into the final 16 of the 2002 FIFA Korea Japan World Cup.

Based on its abundant experience of holding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the city was successful in its bid to host the 2014 Asian Games. In order to successfully hold this major sporting event, the city has established an advanced transportation system and constructed new stadiums and accommodation across the city.

The city'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ity railroads, and metropolitan and main line transportation networks, are among the best anywhere in the world.

With our most sincere hopes that Korea will again host the world's most prestigious football festival,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is eager that Incheon Metropolitan City becomes a host city for the 2022 World Cup.

Therefore,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expresses its wish to hold major matches, including the opening game, in Incheon City, taking full advantage of its state-of-the-art facilities.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is confident that it is able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2022 Korea World Cup Organizing Committee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that it will fully cooperate with a view to successfully holding the World Cup by strictly observing the following:

1. All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matches regulated by FIFA and the 2022 Korea World Cup Organizing Committee, shall be properly equipped for media and telecommunication purposes, and security and doping control;
2. All the main facilities and other buildings utilized by the Asian Games Incheon 2014, together with Munhak World Cup Stadium, shall be available to FIFA and the local organizing committee for a period set by them, and any limits on advertizing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FIFA shall be complied with;
3. All necessary measures shall be taken in the fiel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and security in order to ensure a successful 2022 World Cup.

April, 2010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Members